

박재완의 포도 색즉시공

4월을 보내며

며칠, 세상은 온통 화사한 꽃들로 시간을 보냈다. 곡우(穀雨)가 지나간 자리엔 풀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눈과 귀를 가진 것들은 모두 더 멀리에 있는 세상을 보겠다고 분주하다.

바야흐로 모든 것들이 운을 내고 속도를 내는 시간이다. 그리고 보니 숨을 쉬는 것들은 모두 앞을 다투며 산다. 앞을 다투어 피어난 꽃들과 풀들만 들여다봐도 생사의 비밀 하나 짚은 들을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자리가 다 같은 모습일 수 없는 것이, 별이 드는 곳 다음엔 별이 적은 곳이 있어 더딘 꽃도 있고, 더딘 풀도 있기 마련이다. 더딜 수밖에 없는 곳에서 더딜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 앞서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어느 산골, 조금 더딘 풍경 속에도 생사의 비밀은 한 가지로 들었 을 것이다.

글·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삶의 5가지 원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삶'이다. 삶이 없다면 자신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귀영화도 없고, 행복도 없을 것이다.

그토록 소중하고 값진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물어올 때 나는 삶의 5대 원리를 제시한다.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 이 5가지 원리다. (출가하기 전 내게 고인이 다했을 때 스승이신 동사섭 행복마을을 용타 큰스님께서 가르쳐주신 원리다.)

정체의 원리란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정체관, 즉 바람직한 자아관을 갖는 것을 말한다.

평소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저 그러저러한 사람이야'라는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아주 착한 사람이야', '나는 매사에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야'라는 믿음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항상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간다.

사람에 따라 자아관은 각기 다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4가지 차원의 자아관이 있다. 보편적 자아관이다.

첫째, 부정적 자아관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항상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왜 키가 160센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영어를 잘 못할까?' 하고 자기를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아관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사람은 열릴 운세도 열리지 않는다.

운세가 열리는 법은 간단하다. 부정적인 자아관이 인식되는 순간, 바로 그 뒤에 '그러나'를 붙여버리면 된다. '그러나'가 바로 묘약이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영어를 못할까? '그러나' 굶고 있는 할 수 있잖아",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 모양이야. '그러나' 커피 하나는 잘 타잖아"라며 부정적인 인식이 드는 순간 바로 그 뒤에 '그러나'를 붙여버리면 부정적인 자아관은 순식간에 긍정적인 자아관으로 바뀌어버린다.

진공적 자아관은 '나는 없다',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허공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삼법인' 가운데 제행무상과 제법무아가 여기에 해당한다.

묘유적 자아관은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의 그 산과 물과 같은 자아관을 말한다.

산시산 수시수(山是山 水是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산시비산 수시비수(山是非山 水是非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더라)

산산수수(山山水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마지막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처럼 아무리 부정해도 끝내는 묘하게 현존하고 있음, 그때의 자아가 바로 묘유적 자아관이다. 반야심경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 행복하게 누려라

그것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색'이 바로 묘유적 자아관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진공묘유적 자아관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긍정적 자아관은 갖고 살아야 한다.

대원의 원리는 커다란 소원, 즉 원대한 바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음 만으로도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전 세계 인류, 파리, 모기, 아메바, 잡초 등 전 우주공간에 존

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수심'이다. 자기 마음을 잘 닦고 관리하는 것이다. 수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행복을 창출할 수 없다. 질료가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평소엔 우리가 보시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고, 계를 잘 지키고, 참선과 명상을 많이 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 절에 다니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수심을 위해서다.

화합의 원리는 내 가족은 물론 모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무리 행복해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화합을 잘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국가, 내 민족, 우리 지구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먼저 화합하고 살 곳은 가정이다. 가족 간에 화합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잘 살리 만무하다. 설혹, 다른 사람들과는 화합을 잘 하고 산다고 해도 집에만 들어오면 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화합의 첫 단추는 상대방의 행복을 진정으로 빌어주는 것이다.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매일 매일 일터와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순서대

로 상대방의 행복을 기쁘게 빌어주며 화합과 진교를 잘 해나가면 행복과 평화는 절로 넘쳐난다.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는데 삶이 기쁘고 즐겁지 않을 리 없다.

작선의 원리는 착하고 바람직한 행동, 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사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즉, 소임과 비소임의 일까지 더 잘하고 살아야 한다는 원리다.

소임(所任)의 일은 무슨 일을 할 때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일이다. 비소임(非所任: 비소임의 소임)의 일은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처럼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행복한 인생을 위해 다양하게 하고 사는 일체의 일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행복의 질은 비소임의 일에 달려 있다. 소임의 일이라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비소임의 일은 먹고 사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소임의 일을 잘 하고 사는 것은 자신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다.

이처럼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나는(정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대원), 마음을 잘 닦고 관리해서(수심), 내 가정은 물론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서로 화합하고 친목하며(화합),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작선)"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속으로 세 번만 명상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행복은 닥쳐올 것이다.

#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건본

대나무 숲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 공단연등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 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로 100번